

수선화가 피어낸 기적, 작은섬 선도의 봄이 시작됐다

자치CEO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섬은 바다 위 고립된 땅이 아니라, 희망을 키우는 삶의 터전입니다.”

신안군 지도읍 선도(蟬島). 매미를 닮은 작은 섬, 지도 밖 외딴섬으로 불리던 이곳이 어느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른 봄이 시작되는 ‘수선화의 섬’이 되었다. 200만 송이의 황금빛 수선화가 바람 따라 물결치고, 꽃을 보기 위해 해마다 수만 명이 찾아오는 변화의 중심에 선도라는 이름이 있다.

인구 220명 남짓 작은 섬 선도, 그 시작은 소박했다. 현복순 여사, ‘수선화 여인’, ‘수선화 할머니’라 불리던 한 어르신 이 집 앞을 하나둘 수선화로 채워가며 피워낸 정성의 기록이 선도의 서사로 시작되었다. 그 한 송이, 한 송이의 이야기에 신안군이 귀 기울였고, 2018년 ‘수선화의 섬’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섬 수선화 축제’가 첫발을 뗐다. 또한 전라남도의 ‘가고싶은섬’ 사업에 선정되며, 지금까지 213억원을 투자해서 14ha(헥타르) 대지에 1000만 송이 수선화를

식재해 명실상부 ‘수선화의 섬’을 가꾸었다. 지난 14일에는 한국섬진흥원이 발표하는 ‘이달의 섬’에 선도가 선정되며 그 기쁨을 토하고 있다.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랑색 의상을 착용한 관람객의 입장료를 할인하는 이색 이벤트를 열고, 유람선, 셔틀버스 운영 등 편의를 제공했다. 그 결과, 2024년에는 무려 1만 8000명, 2025년은 1만 2000명이 이 작은 섬을 찾았다. 섬 전체 인구의 80배에 달하는 발걸음이다.

수선화는 단순한 경관이 아니다. 선도의 삶을 바꾼다는 변화의 씨앗이다. 마늘, 양파 대신 수선화 구근을 생산하며 농업 패러다임을 전환했고, 꽃차 소믈리에 양성 같은 교육은 주민들의 자존감을 키우는 문화적 복지로 이어졌다.

입장료와 축제 관련 수입만 해도 2억원(축제 기간)이 넘어가며 부녀회 부스를 비롯한 주민들의 매출 소득도 급증했다. 요컨대 선도는 소득과 정체성, 공동체가 동시에 피어낸 기적 같은 섬이다.

이제 선도는 ‘꽃’을 넘어 ‘지속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LED 교체, 탄소중립 문패 부착, 환경 체험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마을’로 도약 중이다. 축제를 준비하며 선도의 모든 주민

들이 참여하는 섬 대청소는 물리적인 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회복이라는 보이지 않는 지속성을 기대하게 만든다.

이렇듯 선도로 대표되는 신안군의 ‘1섬 1정원’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관 조성 사업이 아니라 섬마다 고유한 이야기를 담고, 꽃과 나무, 사람을 이어주는 일종의 생태적 재생 모델이다. 단지 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지키고, 섬에 새로운 미래를 심는 일이다. 퍼플섬, 수국섬, 맨드라미섬이 그랬듯 수선화의 섬 선도는 작은 섬 변화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고, 그 변화는 전국 작은 섬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섬은 외로움과 불편의 상징이었지만, 오늘날 신안의 섬들은 이야기가 있고, 사람이 있고, 경제가 살아 있는 ‘자랑스러운 삶터’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섬. 하지만 그 섬에서 먼저 피어내는 봄이야말로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다. 고립이 아닌 연결로, 낙후가 아닌 가능성으로, 신안의 섬들은 그렇게 매일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선도의 수선화가 또 한 번 만개하는 지금, 우리 신안은 또 다른 작은 섬들의 봄을 준비하며 꽃단장을 이어가고 있다.



동부경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

광주 동부경찰은 17일 동구 남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캠페인에는 동부경찰 교통과와 교직원 등을 비롯해 동구, 동구의회, 녹색어머니회, 해병대전우회 등 유관기관 50여 명이 참석했다.

동부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합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남부소방, 어린이집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광주 남부소방은 최근 풍경채어린이집 원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서 견학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이날 교육은 소방 차량 등 장비 견학, 방화복·보호헬멧 착용, 물소화기를 이용한 소화기 사용 방법 교육, 기념 촬영 등이 진행됐으며 어린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하고자 마련됐다.

이정준 기자

전력거래소, 광근열 신임 경영기획 부이사장 임명

전력거래소는 신임 경영기획 부이사장(상임이사)으로 광근열(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장을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광 부이사장은 1968년 서울 출생으로 2007년 산업자원부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해 가스산업과, 투자정책과 사무관을 거쳐 2019년 서기관 승진 후 마산자유무역



년이다.

지역관리원장 등을 역임하고 이번에 전력거래소 경영기획 부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7년 4월16일까지 2

최권범 기자

광주 서구, ‘적극행정 최우수’ 남가희 주무관 선정

‘청소년 공간’ 관련 적극소통 호평

광주 서구는 2024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 남가희(사진)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남 주무관은 청소년 자율공간 설치와 관련해 아파트 주민 간 의견이 엇갈리자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며,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낸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서구는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막힘없는 빗물받이’를 설치한 건설과 조태범 주무관과 자원순환 모바일 앱 ‘온리유즈’ 구축을 추진한 자원순환과 김연다 주무관,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 세무2과 수납팀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평가 기준은 주민 체감도, 중요도, 적극창의·전문성 등이며, 선정자들에게는 실적 가점과 포상금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백남인 서구 적극행정위원장(부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며, 능동적으로 대응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착한도시 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 남부경찰, 청소년 도박범죄 예방지원 협약

광주 남부경찰은 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 광주전남센터와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도박 중독 청소년을 위한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와

함께 도박 인식 개선 캠페인을 매월 1회 실시하기로 했다.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보호계 관계자는 “도박을 포함한 각종 청소년 문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